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

호화롭던 황제의 수레가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, 형체가 썩는다.
오직 善業만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다.
이런 말은 모든 성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다.